중국 요녕성, 한국으로 채소수출

중국 요녕성(遼寧省)은 무공해, 안전, 고품질, 영양가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채소를 한국으로 수출한다. 딴뚱시(丹東市)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서, 품목은 주로 무, 배추이며, 지난해 1,800톤에서 7,200톤이 증가한 9,000톤에 달한다.

딴뚱시는 최근 수년간 채소생산을 위한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채소 생산과 가공에 참여하고 있다. 금년은 한국 기업이 뚱강시(東港市), 콴띠엔현(寬甸縣), 쩐안구(振安區), 위엔바오구(元寶區) 등지에서 무와 배우 수출생산기지를 약 166ha 개발하였다.

외국 기업이 종자, 비료, 농약 등 제공하고, 지역농가가 재배관리를 하거나, 외국 기업이 토지를 임차하여 농가가 재배하는 형태이다. 기업이 전량 인수하여, 가공, 수출하는 일종의 개발수입이 정착되고 있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 2004년 11월 15일자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